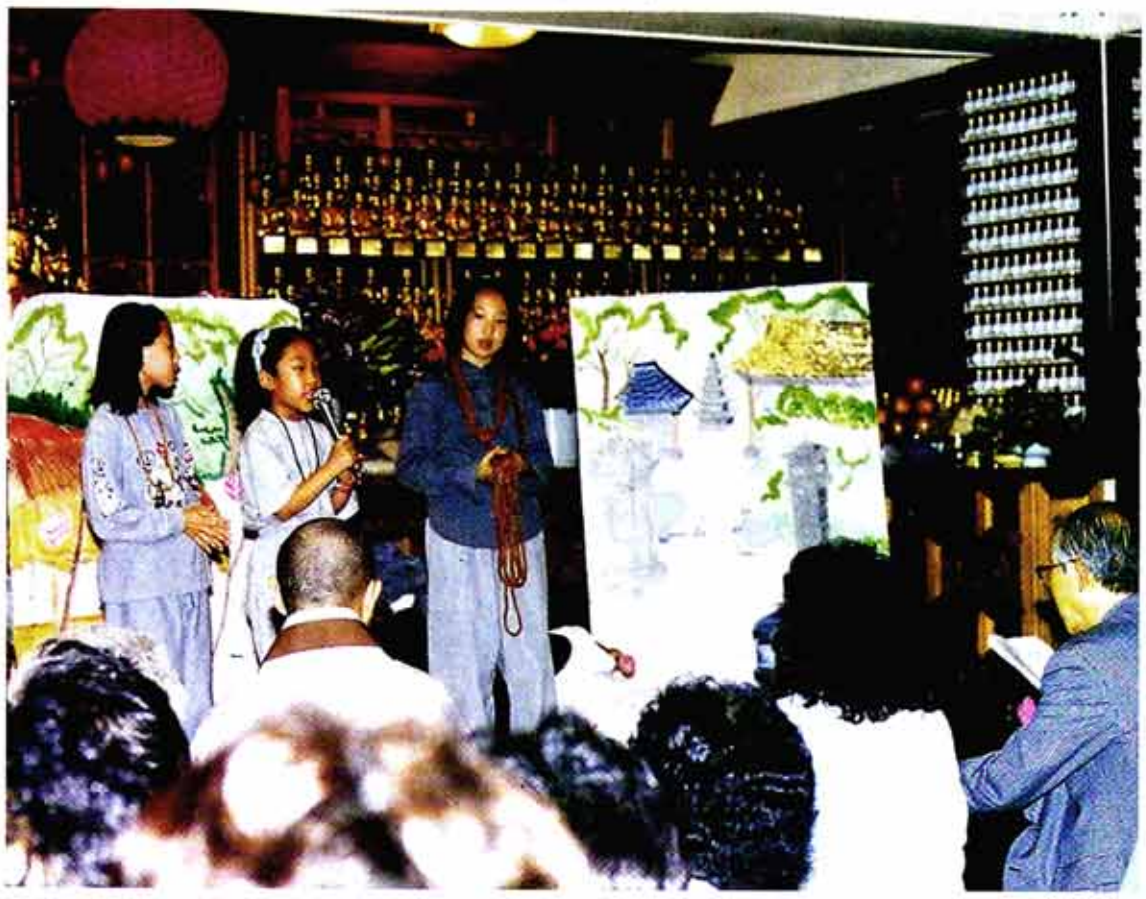
시방세계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환조건 동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예술인, 지식인 등 중산층들이 모여사는 신도시에는 초·중학생의 자녀를 둔 30~40대의 중장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법회의 활성화가 포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은 분당 연화사 어린이회가 초파일을 맞아 연극을 하는 모습.

◇콘크리이트 건물 사이에 둘러싸인 신도시포교당은 종교적인 기도수행차외에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사교공간 및 문화공간의 역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사진은 일산에 있는 송광사 포교당 정혜사 전경.

신도시 포교 노하우 찾자

일산엔 교회 357곳…사찰 21곳뿐
분당 평촌 산본등도 불교세 열악

중산층 밀집지역 포교 황금어장
사찰 건립등 종단차원 대책 필요

신도시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92년부터 건설부가 중심이 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통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한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가 건설한 신도시는 현재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수지 등 6곳. 앞으로 정부는 서울 서쪽의 김포, 서북쪽의 고양, 남동쪽의 용인, 서남쪽의 안산 등지 중에서 추가로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신도시는 대체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택지가 조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30만~40만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어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우후죽순 늘어 나는데 비해 불교의 사찰은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인구 39만8천명(9월30일 현재)이 살고 있는 분당에는 교회가 26개인 반면 절은 10개이고, 40만7천명(10월1일 현재)이 살고 있는 일산에도 교회는 357개인 반면 사찰은 21개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구멍뚫린 신도시 포교의 현주소를 직감할 수 있다.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역의 비싼 집세 및 생활비 문제의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공급이 원활하고 물가 부담이 덜한 이곳으로 옮긴 경우가 많다. 또 교통혼잡과 인구 밀집에 따른 공해를 피해 장소에 따라서는 한적한 전원 생활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내재된 신도시를 주거지역으로 택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따라서 신도시 거주자들은 재정적인 기반 미련과 거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전출할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 인구중에는 셀러리맨을 비롯해 언론인, 예술가 및 지식 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은 것도 또하나의 특징이다.

이런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보더라도 신도시는 교세 확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이렇게 포교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어서인지 도시가 형성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개신교회들이다. 구청에서 선정한 종교부지 선정에도 3대 종교중 개신교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일산만 하더라도 종교부지중 개신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80%가 훨씬 넘는다고 일산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귀띔한다.

적극적인 선교로 교세 확장을 하는 개신교에 맞서 체계적인 포교를 하지 않는다면 한 도시 당 30만명~4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신도시이 불교가 설자리는 좁아진다.

신도시의 절이나 포교당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귀의처와 재우침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전통 사찰의 모습을 띤다면 그 자체가 회색빛 콘크리트단지에서 산사를 방문 한 것 처럼 도시인들에게 안온하게 다가설 수 있다. 때문에 신도시의 젊은 신앙의 도량처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와 지루한 일상의 삶속에서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쉼터의 역할도 함께 할수 있어야 한다. 특히 평일에는 직장일 때문에 시간제약을 받는 신도시인들에게는 절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신행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건평 3천평에 대웅전을 비롯 예식장, 청소년회관, 소극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신도시포교당의 대표적인 모델 일산 여래사.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신도시의 절은 종교적인 목적이외에 결혼식장·교양대학·주민회의 등 친교공간과 다도·서예 배움터 등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서예, 다도, 무용, 찬불가 등을 도반들과 함께 배우고 복합문화 시설이란 친근한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신도 및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다. 또 스님들도 신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척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파트 단지마다의 구역법회를 봉행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포교 전략을 취해야 한다.

신도시 포교는 포교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지만 현재 개신교에 비해 절이 늘어나지 않는데다 문을 닫는 포교당까지 생기는 등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난 때문. 신도시포교당은 장소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세금 등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중동의 대원포교당 주지 현성스님은 "종단과 본사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큰 스님 법회 등 행사를 한 번 하려 해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산층이 많은 이곳 신도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신도시 포교당 신도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30대~40대가 많다. 따라서 타도시와는 달리 신도 자체가 젊고 능동적이며 체계적인 신행교육이 필요한 대상들이다. 하지만 신도시 포교당을 여는 스님들 대부분이 포교 경험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도시에 있는 도심 포교당은 명산에 위치한 대찰들과 서로 빈번한 교류를 통해 포교효과의 극대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포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신도시에 가장 많은 포교당을 개원해 활발히 포교하고 있는 곳은 종도사다. 현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일산 여래사를 비롯해 분당 장안사 및 연화사, 평촌 보림사, 중동 서래사, 탄현 원각사 등 5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산에 짓고 있는 여래사는 연건평 3천평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대법당이외에 시청각실, 소극장, 예식장, 청소년회관 등 복합 문화공간이 어우러져 본격적으로 문을 열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송광사 일산포교당 정혜사(주지 정안)도 지난해 10월 어린이법회와 가족법회를 비롯해 생활도예 강좌 등을 마련하며 신도를 늘여가고 있다. 또 올 8월부터는 초심자들을 위한 불교 교양대학인 '묵우불교대학'과 월소식지 '정혜사'를 발간하고 있는데 주지 정안스님은 "불교 교양대학의 절반 이상은 30·40대의 젊은 초심자들이 많다"며 "예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니까 출근하다가 들러 예불을 모시고 가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 신도시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따라서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신도시 포교의 대안으로는 평일에는 도심 포교당에서 신행생활을, 주말에는 호젓한 산사를 찾아가 큰스님들의 법문이나 참선 수련회를 통해 도심 포교당에서 느낄 수 없는 산사의 매력을 불어넣어 신행생활을 연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도시 포교를 하는 스님들은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인다.

포교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단순한 기복 신앙의 형태가 아닌 교육과 수행, 실천과 생활 의례가 조화된 유동 인구가 많은 신도시형 신앙형태를 위해 종단 및 대규모 사찰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포교 방법도 선행돼야 한다.

또 신도시 구청이 타부지에 비해 30~40% 싼 가격에 지정해 주는 종교부지 확보에도 종단과 재력있는 사찰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신도시 사찰

지역	사 찰	전화번호
일산	여래사	(0344)905-7766
	정혜사	(0344)907-8900
	정각사	(0344)970-0553
	임조선사	(0344)903-9121
	지비정사	(0344)964-7988
	원각사	(0344)913-7744
	보원사포교원	(0344)962-5613
	원흥암	(0344)359-4492
	영천사	(0344)975-2774
	용학사	(0344)386-8849
	용화사	(0344)962-8387
분당	연화사	(0342)706-7766
	장안사	(0342)703-7766
	약사암	(0342)702-2036
	원적정사	(0342)704-8272
	천은선원	(0342)701-3939
수지	영험사	(0331)262-1186
평촌	보림사	(0343)383-7766
중동	서래사	(032)653-7766

지금 미국에선 염주 팔찌 '유행'

지금 뉴욕과 LA에선 팔찌형 염주들이 대유행을 하고 있다.

1998년 9월 뉴욕에 사는 디자이너 조 메트로여사는 불교명상과 치료의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수정에서 영감을 얻어 염주보석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다음해 1월 메트로여사는 보석이 발산하는 힘에 따라 색깔을 입힌 파워염주와 팔찌상품을 개발 '스탈라 페이스'라는 브랜드로 내놓았다.

이 '氣염주'는 자주색은 깨달음, 초록색은 성공, 보라색은 지성, 흑색은 우울증예방, 그리고 혼합색의 염주는 명상을 각각 의미한다. 지난해 5월 '셀프'라는 잡지가 이 염주와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여러 명사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기(氣)염주의 주가가 치솟았다.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와 갈가수 마돈나, 릭키 마틴 등도 이 염주와 팔찌를 차고 있다.

아시아에 있는 여러공장에서 이 제품들을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 보급한다. 이 파워 염주와 팔찌들이 뉴욕과 영국의 대형 백화점인 해로즈와 프린템프스에서도 취급,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메트로여사는 곧 런던에 전시장을 낼 예정이며 유럽시장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불교를 상징하는 용품인 염주가 얼마나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지 주목해 볼일이다.

〈뉴스위크〉지 최근호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 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신용신안등록 No24266호) 했다. 천만분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중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뚫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조구백자(27cm×32cm)화한 백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헌 윤중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영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영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